

영암군 고향사랑답례품 'F1 레이싱카 체험' 눈길

전문카레이서와 함께 질주 영암 지역 개성 강조 기회

영암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독특한 답례품을 연달아 선보이고 있다. 천하장사 식사데이트권에 이어 F1 레이싱카 체험 상품 개발 예정으로 참여율을 높이기위한 답례품 개발에 박차를가할 계획이다.

12일 영암군에 따르면 오는 3월8일 진행예정인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이 열릴 호응 속에 현재 기부자를 모집 중인 가운데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F1서킷을 전문카레이서와 함께 질

주하는 신규 상품을 준비중이다.

새로운 유형의 답례품이라는 평가 속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은 영암군에서 운영하는 민속씨름단과 함께 미팅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현 천하장사 김민재 선수를 비롯하여 주말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대중에게 높은 유명세를 얻고 있는 김기태 감독(한라장사 10회), 유튜브 채널 '윤코치의 맛만 볼까'를 통해 구독자 32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윤정수 코치(천하장사 2회)와 이번 2023 설날장사 씨름대회에서 각각 금강장사와 한라장사에 등극

한 최정만, 차민수 장사와의 식사가 마련 되어 있다.

이 답례품은 영암군 민속씨름단과 함께 영암의 대표 보양식인 갈낙탕, 한우 등을 즐기고 씨름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전국의 조명을 받고 있다.

군에서는 민속씨름단 홍보효과와 함께 군 대표음식을 통한 지역 개성을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데이트권에 이어 영암군에서만 제시할 수 있는 특색있는 답례품으로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F1서킷을 전문 카레이서와 함께 질주하는 새로운 상품

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답례품 개발과 동시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부금 사용처 또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답례품 경쟁보다 지역사회 공헌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지역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에서 심사숙고하여 준비한 답례품인 만큼 보다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털 '위기브'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

평생학습 수강생 15~21일 모집 함평군, 바리스타 과정 등

함평군은 15~21일 군민을 대상으로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강좌는 △바리스타 △라탄공예 △성인발레 △캘리그라피 △문학글쓰기 △부동산경제실무 △칼럼타 등 15개 과정이다.

상반기 모집 인원은 총 274명으로 각 강좌당 20명 이내로 선착순 모집한다.

강좌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함평군 평생학습관, 주제영상관, 농업기술센터 플라워푸드교육장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함평군 홈페이지(<http://www.hampyeong.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인구경제과 교육지원팀(061-320-1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신재현 기자

식품가공기능사 자격 취득 교육 진도군, 24일까지 접수

진도군은 오는 6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필기와 실습 교육으로 운영되며 오는 3월9일부터 6월5일까지 40명이 참여한다.

교육은 식품화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과 기계, 우유 산도 및 품질 검사, 두부 제조 등 식품 가공 전문 교육으로 실시된다.

진도군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접수는 24일 까지다. 문의는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061-540-6123).

교육 이수 후 식품가공기능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식품의 제조·가공과 품질관리 실무에 대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으며 진도군 농특산물 제조·가공분야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백재현 기자

농업인 2000명에 실용교육 신안군, 13~24일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농업인 실용교육을 13일부터 24일까지 14개 읍·면 농업인 2000명을 대상으로 강의한다고 12일 밝혔다.

1969년 동계농민교육으로 시작한 53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육으로 영농계획을 수립, 지난해 영농상 애로사항 해결, 달라지는 농업정책 홍보 및 주요 품목별 핵심기술 보급을 위한 것.

교육은 농업 동향 및 전망, 수도작·고추·마늘·양파·대파·시금치 작목별 핵심재배기술과 국정시책 및 농업정책 홍보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과 함께 맞춤형 농사달력도 제공하여 시기별 농작업 정보, 병해충 발생시기에 따른 방제요령과 토양검정, 농업유용미생물 분양 등 유용한 영농정보를 습득하여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창출로 연계 될 수 있는 농업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영교육팀(061-240-4123)으로 하면 된다.

신안=홍일갑 기자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해남군, 오늘부터

해남군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접종 대상은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로 2018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유아부터 2022년 7월생 중 생일이 지난 영아까지이다.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는 접종이 권고된다.

영유아 기초접종은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8주(56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시행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국가예방접종은 별도 간격을 두지 않고 동시에 접종 가능하다.

접종 의료기관은 해남종합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 총 2개소로 해남종합병원은 목요일, 해남우리종합병원은 금요일에 접종을 시행한다.

당일 접종은 13일부터, 온라인·전화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은 20일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및 사망 위험을 낮춰야 한다"며 "보호자들의 적극적인접종 참여 당부한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일하는 청년수당 대상 모집 연장 무안군, 24일까지 신청

무안군(군수 김산)은 13~24일 관내 만 19~45세의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수당 신청기간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수당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수당은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2개월 단위로 지역화폐와 클린카드에 각각 절반씩 지급된다.

자격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농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중위소득 150%이하인 근로자이다.

무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후 군청 미래성장과 청년SI팀으로 등기우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24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은 후 3월 말까지 근로청년 60명을 선정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일하는 청년수당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청년이 행복한 무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함평군, 영농철 대비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영농철을 앞두고 관내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운영한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영농철을 앞두고 관내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운영한다.

남도국악원 대표작품 '섬' 17일부터 전국 순회공연

남도지역 토속민요 음악적 활용

국립남도국악원은 대표작품 '섬'이 17일 국립부산국악원을 시작으로 부산과 남원, 제주도 등으로 순회공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남도국악원 대표작품 '섬'은 지난해 제작에 착수해 창작 초연한 작품으로, 국립남도국악원(진도) 초연공연과 국립국악원(서울) 초청공연을 통해 관객은 물론 비평가들에게도 호평을 받았다.

살아가기 녹록지 않은 '섬'이라는 공간에서 거친 파도와 바람, 자연과 싸우며 살아가는 가족 이야기와 격동의 현대사를 함께 그려 나간다.

이 작품이 호평을 받았던 점은 90분간



노래와 연주, 극의 전개와 흐름을 위한 음악적 표현을 진도와 남도지역 토속민요와 음악적 소재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토속민요와 민속음악만을 사용한다는 전제와 시도를 통해 별도의 창작음악 없이 민속 음악만으로 음악적 색채감을 구현했다. 전체 작품 연출의 방향성과 예술적 성숙을 이루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섬'의 연출은 지난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문화올림픽 총감독과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문화공연 등을 연출한 김태욱이 맡았다. 극작은 뮤지컬 '라디오 스타'의 각본과 국립정동극장 정기공연 '소춘대유희' 등의 극작을 맡은 강보람 작가가 맡았다.

국악계 거장이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김영길은 음악감독을 맡는 등 각 분야의 최정상들이 참여했다.

이번 순회공연 일정은 17일 오후 7시 30분과 18일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부산광역시), 3월3일 오후 7시30분과 4일 오후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전북 남원), 3월26일 오후 2시와 7시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제주시) 무대에서 각각 선보일 예정이다.

진도=백재현 기자

진도군, 우수 농수산물 판매 소득증대 총력

유통 경쟁력 강화 워크숍

진도군이 농수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12일 진도군에 따르면 워크숍은 지난 9일 진도군 농수산물 유통 관련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해 '소통·유통 함께 잘사는 진도'라는 주제로 열렸다.

마케팅 컨설턴트 황인선 교수가 '마음

을 사는 마케팅, 빅샷'이라는 주제로 고객 니즈 충족과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제시하는 강연을 실시했다.

그룹별 토론을 통해 진도군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향후 농수산물 유통의 중·장기 실천계획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시우 대표(진도강황영농조합법인)는 워크숍에서 "마케팅 강의를 통해 올해

판매 계획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김희수 진도군수 공약사항 일환으로 우수 농·수산물을 통합 관리하고 마케팅, 홍보를 통한 유통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워크숍을 통해 진도군 우수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